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獨、四十五個師動員 佛軍陣地를總攻擊

蜿蜒百五十키로全戰線에서

【巴里五日發同盟】獨軍은 五日早曉 英佛海峽沿岸으로부터 오아제·에느 運河에 亘한 百五十키로 全戰線에亘하여 四十五個師團、戰車裝甲車四千臺로써 猛然總攻擊을 開始하엿다

【巴里五日發同盟】佛國軍司令部發表 獨軍은 五日早曉 總攻擊을開始하여와 英佛海峽沿岸으로부터 랑·소왓손 間에 이르는 全陣地線에亘하여 敵은 猛然我陣地로 向하여 壓迫을 加하여오고잇다

佛軍을殲滅後 英本土를攻擊乎

【伯林四日發同盟】당케르크陷落에 依하여 프란드르 包圍戰은 獨軍의 壓倒的大勝利에 終末을告하여 白國과北佛은 完全히그掌中에 歸하엿음으로 당케르크攻擊戰은 어제英佛何國에 對하여 攻擊을 開始할수잇는立場에 잇다 各方面의 情報를綜合하건대 獨軍作戰當面의 目標는 佛國軍의 集中될것으로 豫測된다 獨軍은 당케르크包圍에는 僅僅二個師團만으로써 하고 殘餘의 精銳部隊及 本國으로부터의 增援部隊는 包圍作戰의 進行中에 이미 솜、에느兩河의 線에 配置하엿스므로 이軍의 裝備는 이미 完成되어잇는데 彈藥 其他 軍需集結에 多少時日을 要하여도 總攻擊開始時期는 十日乃至二週 以內 …

社說

英佛의敗退와 伊의參戰準備

一

伯林발에 依하면 佛白國境의 프란드르 包圍戰은 獨軍이 四日撤退後에 당케르크港을 完全占領하므로써 終幕을 告하엿다 佛白國境의 大會戰은 英佛白軍의 投降 戰死 遁走로 因하여 獨軍의 壓倒的 大勝인것은 事實이다 …

二

…

端境期食糧의成案

一

昨年度旱災의結果 一千萬石의 減收로因하여 念慮되던 食糧問題는 當局의 對策이 適宜하여서 只今까지 別問題없이 지나온것은 多幸한 일이어니와 例의 春窮期의 克服은 當局의 施策과 民衆의 協力으로 因하야 無事히 突破하여 나온것은 實로 多幸한 일이다 …

二

今番의 降雨는 西北鮮에 比較的 만코 南鮮에 적엇다 …

宮中喪 今六日御脫喪

【東京電話同盟】惶恐 하옵게도 天皇陛下께옵서는 지난三月八日 故竹田宮恒久王妃昌子內親王 薨去하신 以來 御服喪中이옵시던바 五日로서 九十日間의 宮中喪이 끗나 六日 御脫喪하옵선다 御喪中은 春季皇靈祭를 비롯하사 宮中御祭典에는 御親祭、御親拜를 하지안하옵시고 神宮、山陵의 御參拜도 御延期中이옵시던바 드디어 九日 御參拜次 關西에 行幸하옵시며 滿洲國皇帝陛下께옵서도 卄六日御來訪하옵실터이며 오는 十五日에는 淳和天皇 千百年式年祭이므로 皇靈殿에御親拜、每月의旬祭에도 今後는 御平素대로 賢所에 御拜하옵실터이시라고拜承된다

德川公爵邸에 勅使差遣吩咐

【東京電話同盟】至嚴하옵신側에 …

德川家達公에 從一位大勳位追敍

【東京電話同盟】至嚴하옵신側에서는 五日薨去한 貴族院議員 …

德川公葬儀 委員長은井出大將

【東京電話同盟】十一日擧行될故德川家達公 葬儀의 葬儀委員長은 井出謙治 海軍大將 …

德川公葬儀 十一日擧行

【東京電話同盟】德川家達公의葬儀는 來十一日午後一時부터 三時까지 上野寬永寺에서 輪王寺門跡 …

德川公略歷

【東京電話同盟】薨去한 德川家達公은 …

半月型進擊陣形成

襄西敵軍을南北으로挾擊

【〇〇前線五日發同盟】五日早曉에 立花、山本、南地各部隊、南側 …

暗夜를利用 敵前上陸에成功

【〇〇前線五日發同盟】漢水를끼고 …

沙洋鎭占領

【〇〇五日發同盟】四日夜半 古 …

襄西地區大混亂

【〇〇五日發同盟特派員發】 …

第五戰區防衛陣 全面的으로瓦解

【〇〇에서五日發同盟】 …

要衝襄陽을攻略

襄東襄西敵軍連絡을遮斷

【湖北前線五日發同盟】 …

海軍部隊活躍狀況

【漢水〇〇艦上에서五日同盟特派員發】 …

米大統領依然 伊首相과文書交換

【華盛頓四日發同盟】 …

米追加國防費 十二億七千餘萬圓要請

【華盛頓四日發同盟】루즈벨트大統領은 지난三十一日 議會에 …

米海空軍擴張案可決

【華盛頓四日發同盟】 …

米移民局移管 司法省으로移管

【華盛頓四日發同盟】 …

辭令

(五日發令)

巴里市死傷者 九百七名의多數

【巴里四日發同盟】佛情報省은 三日獨空軍의 巴里空襲에 依한 四日現在 死傷者數를 …

死者 二五四(市民一九五、兵士五九)

負傷者 六五二(市民五四五、兵士一〇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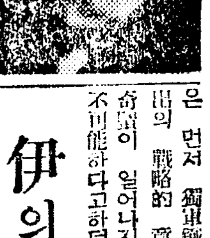
英本國積極援助 加奈陀首相決意表明

【오타와四日發同盟】 …

最後까지抗戰

취칠英首相、決議를披瀝

【倫敦四日發同盟】취칠首相은 四日午後四時三十八分 下院에서 프란도르、아르드와 兩戰線의 戰況報告演說을 하엿는데 首相은 먼저 獨軍鐵桶의 包圍陣脫出의 戰略的 意義를 說明한後 奇蹟이 일어나지안는限 成功은 不可能하다고하던 聯合軍이 그 …



伊의參戰遲延?

【巴里四日發同盟】伊太利의 參戰時期에 對하여는 各種의 臆測이 橫行하고 잇는데 巴里政界에서는 四日伊開戰의 決定事項은 純然한 軍事事項이아니고 …

아이언싸이드部隊 英·高度武裝部隊編成

佛機七十機擊墜

獨空軍巴里空襲戰果

【伯林四日發同盟】獨軍司令部는 四日午後三時의 …

瑞西空軍 越境獨機二機擊墜

【伯林四日發同盟】六月初頭以來 …

土耳其의向背에 獨伊兩國重大關心

【앙카라四日發同盟】 …

蘇、新駐蘇英大使承認

【莫斯科四日發同盟】英國政府는 …

必要物資調整에置重

答申第一號案決定

昨日物價對策審議會總會서

【東京電話同盟】 …

答申案第一號

…

中島、久原兩派 對新黨態度를協議

【東京電話同盟】 …

三橋警務局長 九日歸任豫定

定例軍事參議官會議

【東京電話同盟】 …

洗顔と洗髪に 絶讚의効果!

아로가리性皆無의純粹原料! 使用簡易하고經濟的인 布袋入! 洗顔과洗髮을바르고完全케해서限없이아름답게하는……

若返り美養素 クラブカテイ洗粉

신발겨정도緩和시킨다!

配給統制를徹底斷行

"고무신""運動靴""지까다비"헌겁신에

廿日?七月初旬?統制實施

일반에 상당한 커다란 신는 고무신과 이때만큼 학생운동화, 노동자의 "지까다비"는 오래전부터 대단히 귀하여저서 어린 학생들은 신발이 없고 학교에 다니고 노동자도 신발이 없어서 노동능률에도 중대한 지장이 생기고 잇는 실정에 비추어 총독부 식산국에서는 드디어 고무신(헌겁신을포함)운동화 지까다비의 배급통제를 단행하고저 월여를 두고 연구중이든바 빠르면 이십일경 느저도 내월초순부터는 실시하여 수급조합을 조직하게되엇슴니다 신발걱정도 멀지안허서 해소될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고무신)

月內로百卅萬足

小學生과鑛夫에配給

窮迫한事情에商工課의溫情

고무신 운동화 「지까다비」는 되엇다 불원파가치 멀지안허 고도의 배급통제를 단행하기로 되엇는데 학생의 운동화와 노동자의 「지까다비」는 하루가바쁜 궁박한 사정이므로 총독부 상공과에서는 공급대책으로 이달안에 조선안에서 유신만켜레 내지에서 칠십만켜레도합일백삼십만켜레를 들여다가 가장곤난을 받고잇는 소학교와 광산방면에 배급하기로 결정하엿다

中央엔一元的機關

各道엔配給組合을結成

配給者와運動靴消費者엔傳票制度實施

고무신발의 생산량은 외국에 서디려오는 고무가 국제정세의 급변화에따라 대단히 감소하여젓슴에불구하고 조선의 특수사정과 생활필수품을 확보하는 견지에서 실정은 여간 곤란한것이 아니다 이것은 배급기구가 불비하기짝이 업서서 내지 방면으로 염류되고 그아레 도매업자도 도별 배급조합을 만들게하여 각지소 매상에게 지방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급케한다 ......

支那와內地方面에

頻繁한往來客

和信警察案內所에問議遝至

郊外地土地熱低下

金融貸出警戒로一、二割反落

각주요도시 교외지에대한 토지 실제적수요이고 사후적인 색채 투기열은 최근 점점 식어가는 가 엿보이고 잇스나 문제는 교외지에 대한 사후적이고 이어서 이 수(實需)에 의한것이나 흥분으로 지수익률(收益率)의 조화에 대한 여 실제의 매매의 성립을 보기어 ......

事變三周年

記念日行事

精動本部理事會決定

朝鮮人三名

專檢에파쓰

京電뻐스爆發!

消防車도出動騷動

오일오후 다섯시십분쯤 대화정(大和町)에서 총독부앞으로향하던 경전「뻐쓰」(三、一五五)가 대화정이정목 정류장에 정거하고 「아세틴린」을 보충하려고 운전수 정이진(鄭二鎭)이가 「뻐쓰」후부 「아세틴린」탱크의 뚜껑을 열엇슬때 ......

日.獨音樂放送
十五日午後八時交驩

소매치기

東亞競技大會 (第一日)

跳進東洋의자랑인

東亞大會開幕 (昨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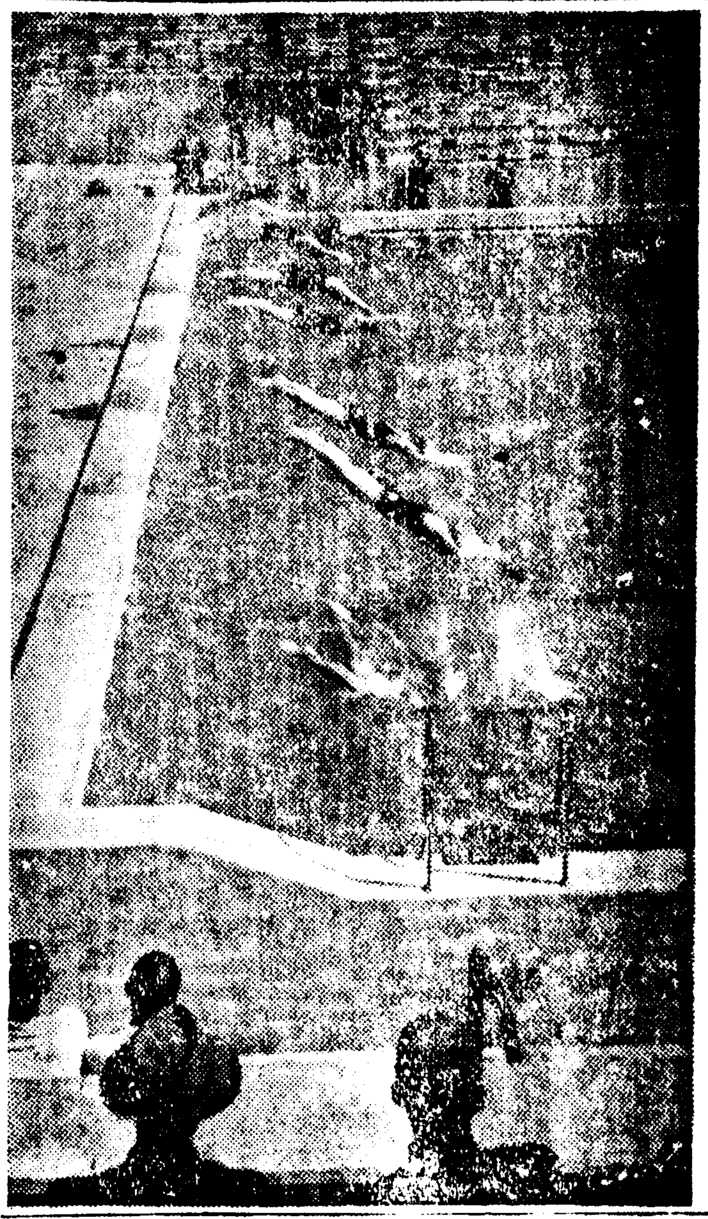
婦女子의活躍에

期待되는銃後陣强化

農事는女子에一任

壯靑年은產業進軍

農繁期農村에"動員令"



물속에 더저진 靑春의 情熱

世醫專病院副院長에

崔在裕博士就任

"택시"에도代用自動車

三輪自動自轉車를利用!

數多한古品은鎖封·新車購入難의姑息策

京城府內徵兵檢查

五日부터一齊實施

金仁燮君三着

公開自轉車競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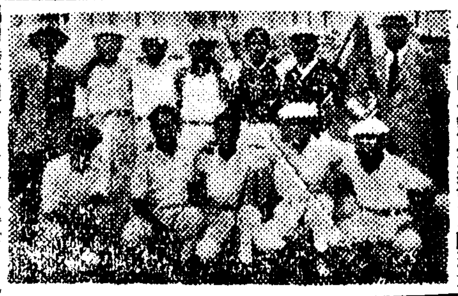
日本軍이大勝

對滿洲籠球戰

朝鮮學生籠球聯盟

第二部夏季籠球리그

六日부터城大서擧行



學生庭球리ーユ

延專優勝

醫專軍이連覇

全朝鮮學生野球

學生蹴球리ーユ

二部에서世專優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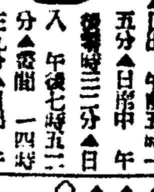
殖銀軍이制覇

實業庭球리ーユ戰

東亞大會

京城검도大會

公演개입開催



補血强壯
ブルトーゼ
부루도제
精力充實
抵抗力强化
各帝大病院常備藥
造血アウトホルモン
ブルトーゼ
アルゼンブルトーゼ
ヨードブルトーゼ
キナブルトーゼ
アグコヤールブルトーゼ
オネブルトーゼ錠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B1442
冊子「活動の源泉・無代進呈」

中部版

赤痢豫防에 鐵壁陣

各講習所、勞動者들에 內服藥을 無料配布

仁川署當局서 必死的努力

【仁川】인천서 위생계에서는 요즈음 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때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역에 노력중이다 작년도에 이질(赤痢) 환자가 일백칠십여명이나 되어서 작년중에 이질로 죽은 자만이 이십여명이나 되었으므로 금년은 미연에 방지키 위하여 지난 오일에는 부내 전염자를 비롯하여 각 강습소와 노동자들에게 ...

復興總督申請者 벌써五十九名

自動車路 三萬料突破記念

圖們에 白米配給 通帳制를實施

東南北地區의 經濟警察會議開催

仁川强盜事件 依然五里霧中

一名取調中이나 眞犯아닌듯

防空訓練에 關한 座談會開催

燒酒不正去來盛行 五月中만七十二件

仁川署에서 嚴重取締方針

慈山敎會老人親睦會

徽文中學校 校內運動會

이번엔荷主側서 짐을잘실지안허

仁川港의滯貨依然山積……

林野의깽松虫

清州郡서撲滅計畫

宋贊洪氏記念碑

忠北二個月間煙草代 勿驚卅九萬餘圓

比前年同期一萬餘圓增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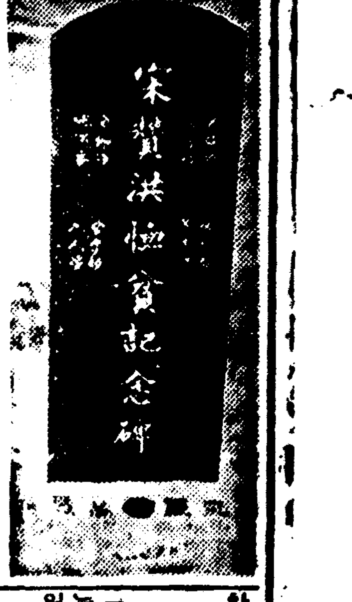
皇紀二千六百年 記念運動會開催

上長面所移轉

詐欺賭博團五名 金浦署一網打盡

새出發한 興亞奉公日

喜雨祝賀會 忠北道에서開催



金融貸出警戒로 土地投機熱冷却

咸興署에는詐欺提訴만殺到

故金仁洙君 葬式五日擧行

勞務者會議開催

人夫賃金優待、公休日設定等

勞働者實際問題討議

佛像그림으로 婦女들을또詐欺

孟浪한者는仁川署서又復檢擧

養蠶講習會實施

學級增設費寄附 回甲記念으로

玉龍金教珉氏의美擧

淸豐火災民에 各地義捐金遝至

豊川交通데ㅣ 成績大端良好

火災中燒米를 燒酒製藥原料로

不良酒橫溢

琿春縣整備委員會

趙面長記念碑建立

經濟統制協力會 光州에서도開催

新義州地方法院 雇員十名募集

農民短期訓練所 第六回修了式

城津老童庭球大會 野上相良組優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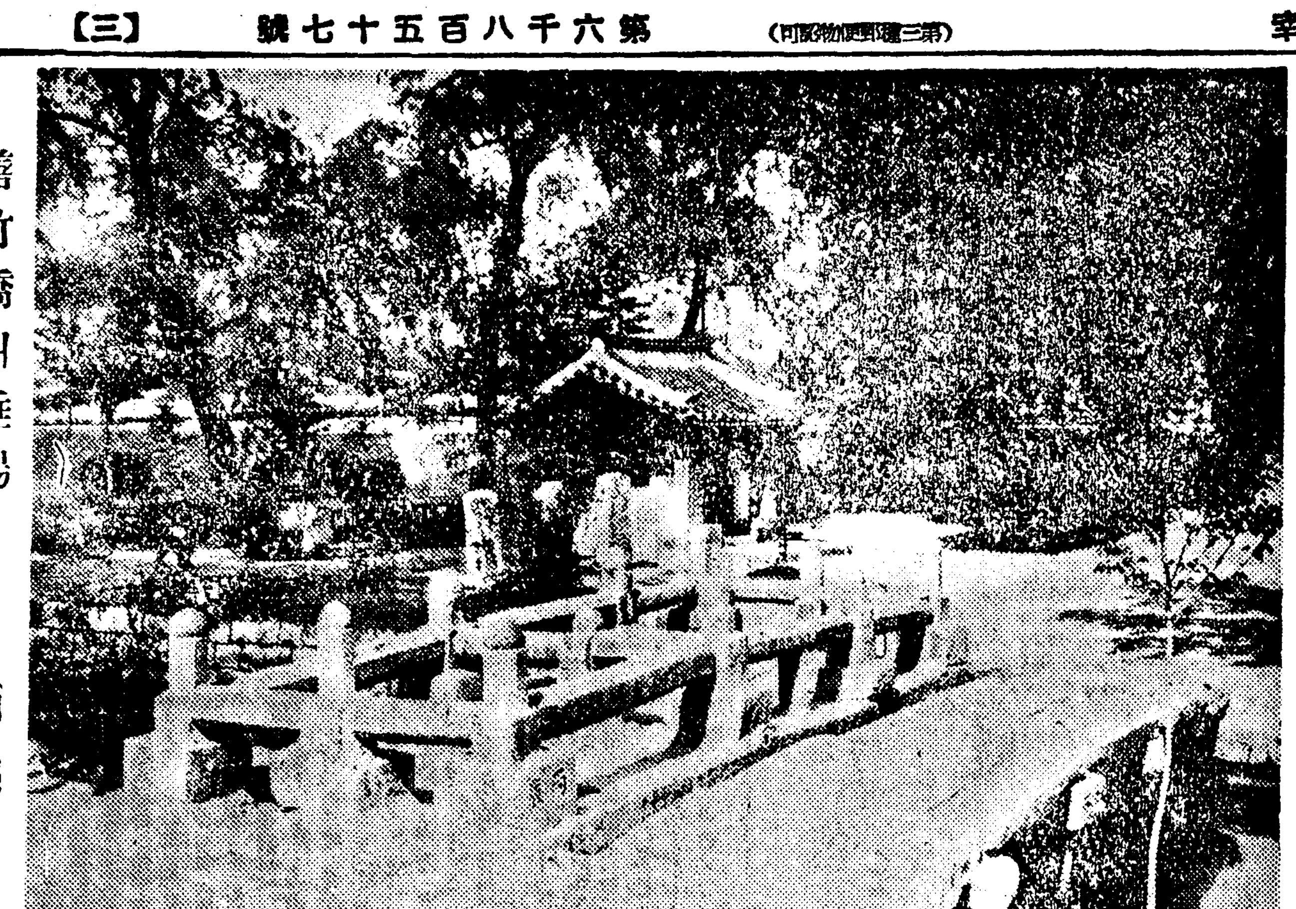
産金道擴充容認

第二次計畫도無念慮

咸南道福地技師歸任談

咸南道五個郡의 上水道一齊整備

總督府眞田技師來道調査豫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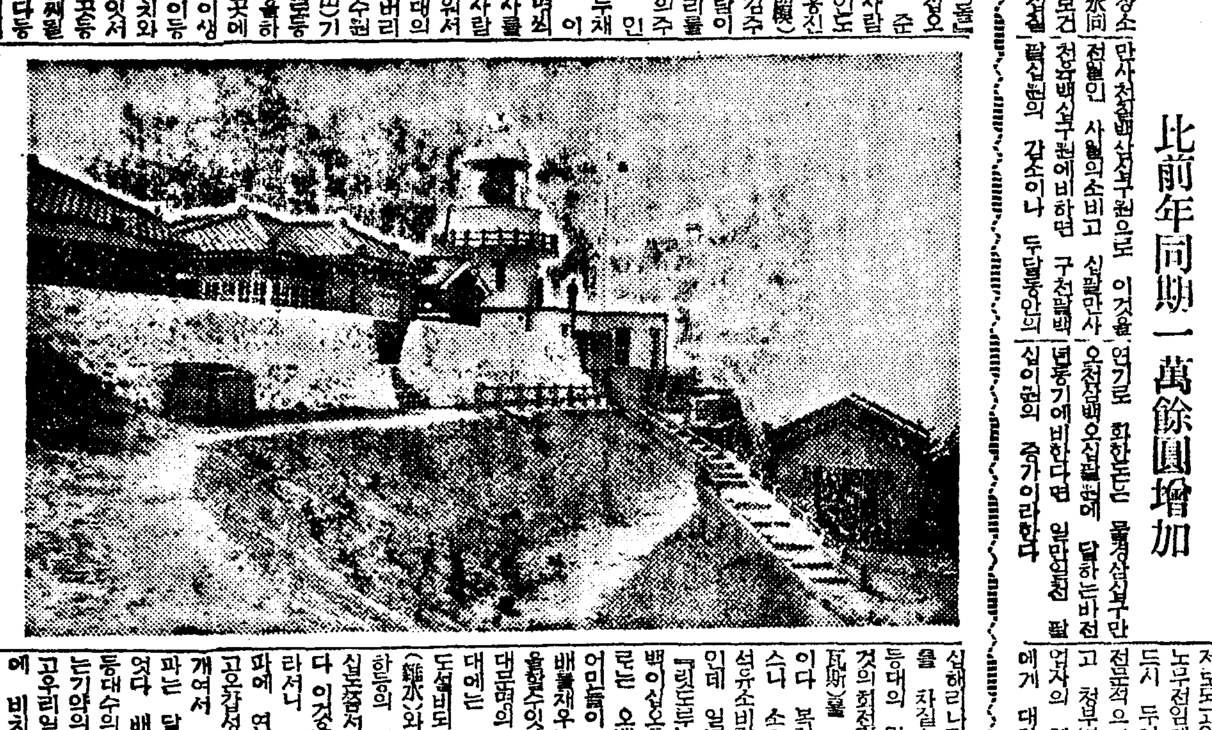
善竹橋의垂楊 (開城)

仁川압바다島嶼巡禮記 (善尾島篇)

西海의새守護神 "惡險島"의燈台

仁川特派員 李源

【仁川】삼천여명 어민(漁民)들의 복잡한 을항속에서 지나는도 그수수꺼기가를 의미하는 선미도(善尾島)의 등대가 작연 하였다 ...



(사진은 선미도시설등대)

大陸劇場

6月3日ヨリ上映時間表

望郷	10・30			
ニユース	12・05	3・35	7・10	
テキサス決死隊	12・15	3・45	7・20	
望郷	2・00	5・25	9・00	

次週 涙ノ責任・君若キ頃

若草東寶

6月3日よりの上映時間表

男對男	10・30	1・20	4・10	7・10
ニユース	11・45	2・35	5・25	8・30
海軍爆擊隊	11・55	3・45	5・35	8・40

劇團高協

巡回日程 六月八日 九日 十日 基 十二日 十三日 南 十四日 十五日 州

雄 羅 吉 春香傳 燈 어머니

明治座

6月3日ヨリ9日マデ

結婚の價値	11・56	3・26	7・00	
ニユース	10・00	1・30	4・53	8・26
カツスル夫妻	10・19	1・49	5・12	8・46

京城寶塚劇場

6月6日よりの番組 黄金座改め

唄ふ高夕起子とそのバント	11・55	2・35	5・15	8・00	
歴史	10・0	12・40	3・30	6・00	8・45

7日は高夕起子實演と愛の人人

優美館

六月六日より大公開 料金 二十錢均一 大平原猛虎隊 若き日の凱歌 振袖若衆

桃花劇場

六月五日六日(二日間) 月形半平太 ジヤツガル 大平洋の嵐

東洋劇場

林巨正傳 春香傳

第一劇場

颱風(ハリケーン) 密林の復讐 東京ブルー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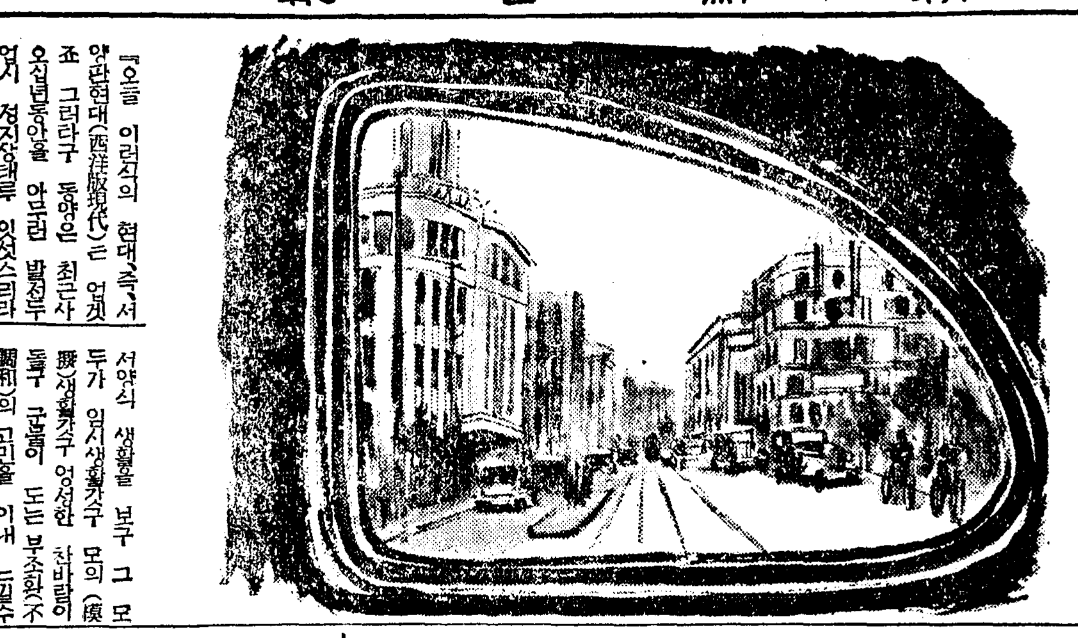
新富座

授業料 太平洋の實

長篇小說
青春茂盛 (72)
李泰俊 作
鄭玄雄 畵

다시붙나비 (十)

「서양이 가저온거야 예수교뿐이아니죠 교육두 가저왓구 건축, 의복, 음식까지 생활의현대적인 모든건 다 서양이가저왓죠」
「그럼 서양은『현대』의 서울이라볼수잇잔어요?」
「그러죠 그대신 동양은 서양의시골로 떠러저버린거, 즉동양은 동양으로서의 서울노릇을못하고 서양의한지방이, 나쁘게 말하면 서양문화의 식민지가돼버린 동양이죠」
하며 치권은 따침 비인『택시』하나가 오는것을 불럿다.
택시안에 들어가 안즈며 은심은 이마에 땀을씻는다.
그리고 다시 대화를계속한다.
「그러치만 선생님? 서양의힘이 아니든 오늘 동양에 어『현대』란게…말헐, 이런자동차, 저런 삘딩도업섯슬거 안야요?」



『오늘 이러식의 현대, 즉서양판현대(西洋版現代)는 언젯죠 그러다구 동양은 최근사오십년동안을 아무런 발전두업시 정지상태루 잇섯스리라 생각해선 안됩니다. 서양문화도 모르던 시대의 동양두동양문화대로 발전해온 역사가 잇스니까요」
「그래두 오늘 서양문화인류생활에 얼마나 편리해젓어요? 선생님두 여러케 자동차 기차다 이용하시지 안흐세요?」
「건 그러치안습니다. 동양이라해서 정신문화뿐이구, 서양이라해서 물질문화뿐으루 생각해선 안됩니다. 서양에두 정신문화가 잇구, 동양에두 물질문화가 업슨건 아니니까… 다만 서양은 물질문화편에더 압섯구, 동양은 정신문화편에 치중햇다는, 비교뿐이지, 서양문화가 오지 안햇스면 동양은 전기두 삘딩두 전혀 업섯스리라구 봐선 빈약한상상입니다. 서양문화가 오지안햇더라두 동양은 동양재래의동양이생활, 동양인 이상에맛는『동양의현대』를 건설햇스리라구 봐야됩니다」
「그래두요. 동양대로라두요. 전보단 물질문화에 더힘썻슬것 아닐까요?」
「건 그럴겁니다」
「그러탤 남이 서양사람이 발명한 전기라구 동양사람은 안썻슬가요? 동일사람이 발명헌 약이라구 조선사람이 안먹구속어야 올흘가요?」
「허허……」
은심도 가치 우섯다.
「그런 소아병적(小兒病的)동양광(東洋狂)은 아닙니다」
「그럼요?」
「아모리 양복을 입구 자동차를 타두 개인에게구, 가정에구 사회에구 독자(獨自)의성격(性格)이 잇서야합니다. 인류의 이상이 코스모폴리탄(世界主義者)에 잇다는덴 난 반대뿐 아니라 그러케 될리두 영원히 업는겁니다. 에스페란토(世界共通語)를보시죠. 그말로 무슨 훌륭한 문화이 어디나옵니까? 개인이구, 단체구, 파산된 성격우에 건설된 문화 영구히 향기업는가화문화(假花文化)이길 면치못합니다」
「가화!」
「이제 하와이나 로샌젤스 가든데 가보십 대뜸 느낍니다. 난 전에 상해(上海)가서 거기서 사는 조선사람들의 반서양식 생활을 보구 그모두가 임시생활가구 엉성한 모의(模倣)생활가구 찬바람이 돌구 군불이 도는 부조화(不調和)의 고민을 이내 느낄수 잇섯습니다」
「……」
은심은『쪼ㅣ지 할』생각을얼른 한다.
「제가 아모리 미국서나 미국말을 잘하고 미국음식과 미국옷에 얼리어버렷다치자 쪼ㅣ지 할의 영혼속에 동양에의 향수가 영영 업슬수 잇는 것일가? 업슬수 업는것이길래 국적은 미국이면서도 조선처녀에게 청혼한다는게아닌가? 난 그럼 쪼ㅣ지 할의 동양에의향수를 위로하러가는 한낫동양의『미아게』노릇이 아닌가? 내자신 미국생활에 부조화될건, 쪼ㅣ지 할 이상일것 아닌가?」
『긴자』에서 나려『시세이도』차방에들어와서다.
「내일이죠?」
치원이게 잠간 물그럼히 은심을 쳐다보다가 눈이 마조치자 뭇는 말이다.
「네」
「배가 몃시에 출범인가요?」
「오후 세시래요」
「그럼 동경서 점심 잡숫구 떠나세두 되겟군요?」
「글세요」
「넓은 정선씨서면 함께 내가 점심을 한턱 내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심은 눈물이 글성해진다。

趣味娛樂

※그後의映畵令※

朝鮮의映畵人은 內地에登錄申請할必要가업다!

내지의 영화법(映畵法)실시와 동시에 내지영화인들이이미 제각각 그들의부문에 따라서 등록신청(登錄申請)을마치고잇는것을 보고 조선의영화인들도『조선영화인협회(朝鮮映畵人協會)』를통해서 최근 내지로 등록신청을 알선하는 사람이 만하젓다한다.
그러나 조선은 영화령(映畵令)에 의해서 이미조선안에서도 벌써 등록해도 무방하게 되어 잇스므로 일부러 다시 협회를 거치어 이가튼 까다로운 수속을 밟지 안하도조타한다.
사실『영화령』이란것은 내지의 영화법에다 처음부터 엇까지 근본적인 근거를 둔것으로서 조선 안에서만 정식으로 등록을 한 사람일것가트면 아프로 얼마든지 자유로 내지영화계에도 진출할수 잇는것이라한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내지등록을 한다할 것 가트면 이중등록이 되니까 수속상 중복이 되는것이라한다.
영화인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널리 어려한 내용을 일반영화인에게 알리기 위하여곳 기회를 보아서 임시총회라도 열고 사실내용을 상세히 보고하려고 방금 준비중에잇다는바 내지영화계에서 일단등록된 조선영화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에 돌아와 일을 시작하드래도 다시 등록을 시켜할 필요가 업스니까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고 되도록 이중수속을 밟지안키를 바란다한다.

作家와監督의領分
各自의部門에徹底하자

▼…「씨내리오」란 일단 [illegible] 감독가 [illegible] 원작에 손을 대고서 작자의 손으로부터 떠나가 기 지금도 [illegible] 작가의 영혼을 [illegible] 내지는 [illegible] 것은 아니겟고 [illegible] 그때부터는 벌써 [illegible] 기저기도 다순을 [illegible] 동의 예술의 소재로서 존 영화인이어 [illegible] 재할 가치만을 가젓다는것 뿐이 의식적이어 [illegible] 을 우리는 상식으로서 의 것은 사실이다。
▼…이말은 다시 바꾸어 하면 작가와 감독은 그들의 각각 마른바 분야에 선 명하게 다르다는것이된다。
『씨내리오』가 감독의 손으로 넘어가서도 작가가 역서 연탑어 간섭을해도 안되고, 감독을 작가가 쓰고 잇슬때 감독이 중언부언하고 미리 시끄러운 의견을 틀어노하도 결국 잡치는것은 영화 그자체이것이다。
▼…어디까지든지 일에잇서서는 엄격해야한다。내경 서서는 [illegible]
▼…일단 작가편 작가로 서의 생각한 세계를다시감 독자신이 다듬고 추리어서 대의 출렬한 되풀리하면어 떠키자는 말인가。
▼…만약『프로듀서ㅣ』는 영화를 제작하는것으로서 단순히 하나의 작공으로만알 지 안는다면 그리고 우선 영두에 시장(市場)이나 만 [illegible]
▼…언ㅅ게도 이곳에서한 [illegible] 말이지만 원작 감독 [illegible] 주연[illegible] 도마다서 하면 서에는 그아말로 조선에영 화란 얼마가 청을 들어와 서 겨우『카메라』나 돌릴 줄 알면 그런한 알욕시대 엿다。지금 와서 우리가다
[illegible]를 생각하면 먼저 그작품에 어 엇다면 가지는「곳스트ㅣ·별무ㅣ」를 생각해서라도 감독파를 작자를 가를 사람의 어를 으로서 대표하는것가튼 그 런한 구매한 짓은 결국하 지안을리라고 떠더지지 안 는것도 아니다。
▼…흔툴 어려한法은없대 는 아니다。예외도 물론잇 다。허지만 그것이 예외인 경우에는 그만치 내부적인 이유가잇서야 된다는것도 우 리는 모르지 안는다。어데 도 더며노코 일인 어역어 나 삼역의 선수(?)가 나 온다면 내외의 어쩌 영화 계를 위해서라도 도저히 그 를 존경할수 업다는것을 끄 든도 다짐해 둔다。

南林

演劇映畵

黃澈氏와豚皮
어느 비가 오던 날 아랑(阿娘)의 김옥균(金玉均)으로 분장해서 이번에 또 부쩍 이끼를 올린 황철(黃澈)씨가 마침 어느 요리점에서 연회가 잇서서 촉박한 시간에 불야불야 신고 간 구두가 해필 돼지가죽 구두엇다.
이것을 문깐에서 보자 어느 작난 조하하는 기생 하나이
「아이 황철씨도 돼지가죽을 신으셋서」
하니까 금방 시침이를 뚝따고
「허ㅣ 그건 모르는 소리지 벼오는 날엔 어 돼지가죽구두가 제일이거든」
하고 유유히 방으로 들어갓다고 손문이 짜아 하다.

元雨田氏와豚肉
이왕 돼지가죽 이야기가 나왓스니 이번에는 돼지고기 이야기를 하자면 역시 극단「아랑」의 장치가 원우전(元雨田)씨가치 돼지고기를 즐기는 분은 또 업다. 바로 지난번 개성(開城)을 나려갓슬때 저녁상을 밧자마자 부스럭부스럭 하고 방에서 커단 신문지 뭉치를 들고 나와 풀어 놋는것을보니 과연 돼지고기에도 허벅지게 넙적다리 하나엿다한다. 잘게 썰지도안코 손으로 다리채 잡고서 쭉쭉 뜨더 잡숫는식은 개성사람이 보고서도 놀랫다하니 과연 엔간하신 모양——하여튼 아랑 파 돼지와는 무슨 기픈 인연이래도 잇는듯.

梁進氏의斷食
무대생활 엽마안되어 이번 김옥균전에서「복쇠」란 중요한 배역을맡튼 양진(梁進)씨는 어디를 갓는지 대 열연인데 더구나 평양을 가서는 목이쉬도록 대열연이엇다. 그래서 여메서 누가 작난으로「이사람아 김치 깍두기를 먹지말고 냉면도 먹지말어 그럼 목이 안쉬지」하엿드니 과연 그날부터 그 조하하던 냉면은 입에도 대지안트라고 가히 상수어 마땅하다 아니할수업다.

由利아께미演奏會
七月一·二日於府民館
『빅타ㅣ』회사의 전속가수로서 그의남성적인 독특한창법으로 이름을 날리고잇는 유리(由利)『아께미』양 일행은 오는칠월 일일이일이틀동안 시내태평통 부민관에서 가요곡(歌謠曲)과『째즈밴드』의 공연회가 잇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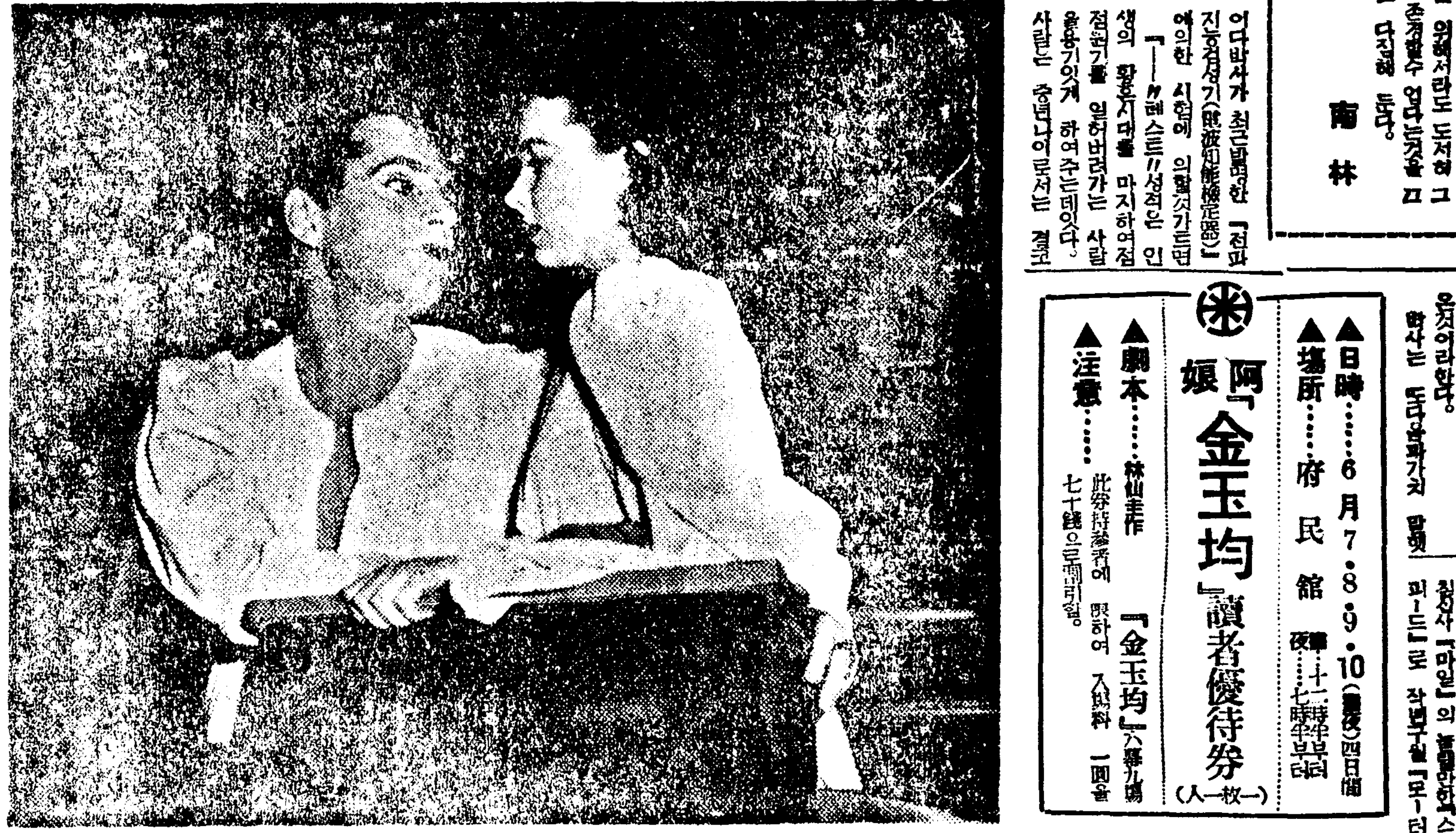
老人樂天說
新學理發見

(「코자젤스」醫學)마호다 셋살이 너머서 머리가둔해젓다고 한탄하는 사람에 게반가운소식이 들린다。
×……×
「칼리포니아」대학심리학교수「코리ㅣ만」씨의 발견이속그것 어다바사가 최근발표한『전파진동지성기(電波知能檢定器)』에의한 시험에 의하면 「ㅣ"메스트"성적은 인생의 황금시대를 마지하여점점 향기를 일허버려가는 사람을 용기잇게 하여주는데잇다。사람은 중년이이로서는 결코 계산적소질을 발휘하는게안는것이다。」
이상의사실을 토대로 하여「코리ㅣ만」박사는 [illegible] 세상에서 흔히「스트」를 [illegible] 인생의 한 고비라고 말하는 [illegible] 늙기라고 일커르는 [illegible] 사람이 자기 능력이 [illegible] 조금밧게 되지안는다는것이 흔히 실증되엿다한다。
×……×
그뿐아니라 이 차이란것도 결코 중대한 의미가업는정도의 극히 미미한것으로 예를 들것가트면 남자와 여자사이의 생리적 차이보다도 더적은것이라한다。
박사는 또다음과가치 말햇다。
「ㅣ사람은 그계산을 사용할것가트면 [illegible]를 넘어도 결코 지능 그자체가 감퇴되는것은아니다。사실 활용하는독거기드면 지능이 활용하는도가 조금 감퇴해야되지만은 지능전체의 활동에 잇서서는 아무런 퇴보도 업는것이다」
이가치 말하엿다하니 나이먹은 노인도 근심할필요가업슬듯하다하여 대이깨를 펼고잇다。

自動車競技王 칸트大尉離婚
한시간에 일백사십오「마일」의 놀람한 속력을 낸「스피ㅣ드」로 작벽구칠「모ー터ー뽀ー트」의 세계기록을지은 유명한 자동차「모ー터ー뽀ー트」의 경기왕『칸벨』대위는 현재 영국공군에잇서서 활략하고잇는데 요즘 일천구백이십년대의 애처로 부인과의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잇다。소송이유는 부인의간통이라한다。그상대는 거만의 재물을가지고잇는 선박업자(船舶業者)「헤이씨」의 영식이니「블리안」휴센드」군이 피고로 드디어「칸벨」대위가 승소(勝訴)하엿다。

※ 阿娘「金玉均」讀者優待券 (一人一枚)
▲日時……6月7·8·9·10(四日間) 晝…十二時半부터 夜…七時半부터
▲場所……府民館
▲劇本……林仙圭作「金玉均」六幕九場
▲注意……此券持參者에 限하여 入場料 一圓을 七十錢으로割引함.

『비비안•리ㅣ』의活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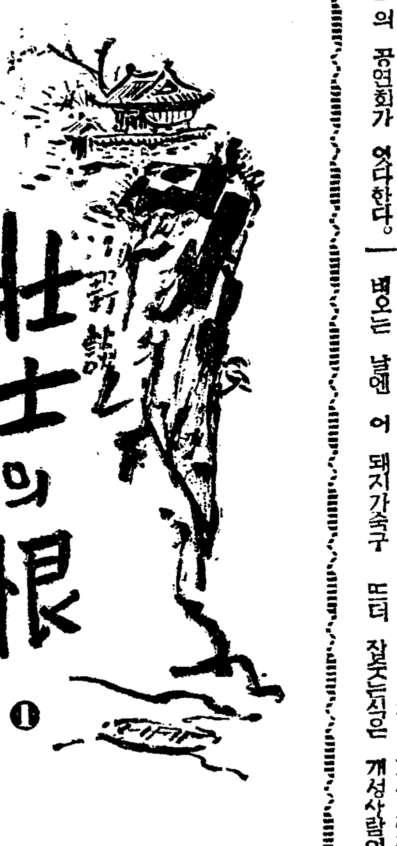


얼마전에『바람과함께가다』의「스칼렛」으로 등장하여 조흔연기를 보여주어 크게 거대한 평을 맛고잇는『비비안•리ㅣ』양은 요즘에 다시『뉴ㅣ욕』극장에서『로미오』와『쥴리엣』으로 분장하여 호평을 바더다한다(사진 연극『로미오』와『쥴리엣』의 一場面)

『바람과함께가다』興行新記錄

『메트로』회사의 무재작『바람과함께가다』는 작년봉절이후미국에서만 어천만『딸러』란 수입을 올리어 서파거흥행계의 신기록을 지엇다한다

新歌謠 壯士의恨 ❶
庾秋崗



전라도 해남에잇는 우수영이란곳은 수군제독으로도 푼이름을 남겨논 이순신공의 사당이잇고 거기서 진도(珍島)라는 섬에를가려면 녹진이란 나루를 건느게되는데 이녹진 나루는 바다물의 큰고개가되어 조금만 바람이 불면 닷새고 열흘이고 바람갓치기를 기다려서 건너다니는무서운 나루터인까닭에 이편언덕 저편언덕에서 마주건너다보며서로지껄여가며 말을 주고밧고하면서도 바람만 조금불기시작하면 꼼작동을 못하고 산덤이가튼 물결만바라다 볼뿐이다.
때는 지금부터 한삼백여년전임진병란으로도 여러해동안 정신을 차리지못하다가 겨우 무서운 난리도 진정이되고 새로 임금이 등극을하사 모든 사람들이 길게 한숨을 내어쉬며
「아ㅣ인제야 좀 마음을 노코 살아보아야지 예ㅣ 지긋지긋한세상……」
이러케 말끗틀 여물리지 못하는 소리로 지꺼리고지내텁 망해주조탄 느즌 가을 아직도 사람의 피비린내가 사라지지안는듯이 새빨건 단풍입새들이 바다바람을 바더 서로 와삭바삭부벼대리는데는 록진나루가에 쌀섬을 태산가치 싸노코 여러사람들이 그쌀섬을 장두리배에 실르라고 법석을 하는데 얼른 보기에는 나히가 한이십여세된 큰총각으로 뵈여도 실상 자세 뜨더보면 열두서너살밧게 안되어뵈는 아이가 더벙머리에 밥바당으로 펄펄 뛰어오든니 쌀섬에 우에가 섯쿰 올라안저서 쌀섬 하나를 어깨에 지고 일어서려는 한 사람을 보고
「여보 갈릉배 아저씨 그 섬속에 무에 들엇소? 물자갈이 들엇소?」
「예끼 이녀석 쌀자갈이 무에나 상놈해기는 쌀이데……」
그중의 한사람이 쌀섬을 배에다 엄석내던지고 휘 돌아서서 그아이를 흘깃 보더니
「올치 너 점홍이냐 너이 아버지 집에잇디? 그런데 어녀석아 이게 쌀섬이지 무엔지 몰라서뭇는말이냐 몸둥이가 저만큼 크구서 이녀석 쌀에만 악통이지 뱃대이속에는 거름만 잔득찻구나 에잇……」
점홍이라 부르는 이 아이는 그록진 나루가에서 어부노릇을해서 그럭저럭 지내가는김용이란사람의 아들인데 어점홍이야말로 병자년이후에 이름이 뛰어나던 필장사가 운데에 한사람으로 옛말에 선단는 싹때부터 향기롭고(栴檀自芳香)

뱃혓어도 농업 사람을 묻다구
나어릿칠세 되던때보터 하는짓이 보통애들과 달라서 천재로는 남에게 지기를시려하는 성질이되어 한번하고저하는것이면 발버둥질을 치며 몸부림을 해서라도그여히 제 마음대로 하고야 말엇고 나이 열살이 넘엇슬때 동이네아들과 씨름을하는데 여간해서 어절들이를 이겨보는애가업섯다.
그래서 이근처에 사는사람들도 이점홍이를 모르는 사람이 업는만큼이아니라 속으로는 어린애 나어 열두서넛박게 안되는 어린애로는 생각하면서도 즉접 대해서는 말로하무도 못하고 슬을 잘우니를 빼여 가꺼어 하지를 못하는터인데 이녀석은 체 일하는 동무들도 여러사람이요 도점홍이가 쌀자갈이 들엇느냐하고 뭇는것이 어리석은 천진짓 가라서 한번 어른인체하고 꾸지저 말을 허엿인데 점홍이는 그사람을 물끄럼이 처다보더니
「여보 순길이아저씨 그것하섬이 한 천근되오?」
「에끼녀석 천근이 얼만데 천근이야 천근이면 어러케 사람이 질머지겟니……」
「그런데 그러케 무거워뵈는 아저씨들은 어린에만도 못하구료……」
「무어이야 어녀석이어른 때를루 지정여 너 이떠러 이거한섬 들어봐라 네 제 어 쌀섬을 들기만하면 너 가저 먹어도조타 예ㅣ 고녀석……」
하고 순길이란 사람이 실업시말을햇다.
점홍이는 눈을끔벅끔벅하고 그 쌀섬을 한참동안드려다보더니 벌떡 일어나서 땅으로 뛰어내려서며
「그럼 아저씨내가 이 쌀섬을한섬이고 두섬이고 들기만하면 그것은 내가 거저가우…」
「그래라 더군다나 두섬을 들어 두섬을 늘면 두섬다 가저가거라……」
점홍이는 헤어진 새끼줄을 주어다가 여러겹을 길게꼬아서 쌀두섬을한게 단단히 묵거가지고 두손을새깨출 틈으로 너서
「음」
한마디소리와 함께 쌀두섬을 머리우로 번쩍 처들고
「자, 여보 나는 이쌀을 가저가요 가저가랫지……」
하고 성큼성큼 어렵지안케 거러가는것을 바라보는 여러사람들은 두눈을 둥그러케 뜨고 혀를 회회 내두르며 서로 처다만보고 아모말들도 못하엿다.
──(계속)──

[illegible]

黃梅時雨好碁戰
英熊兩將이爲爲敵手
觀戰評 權秉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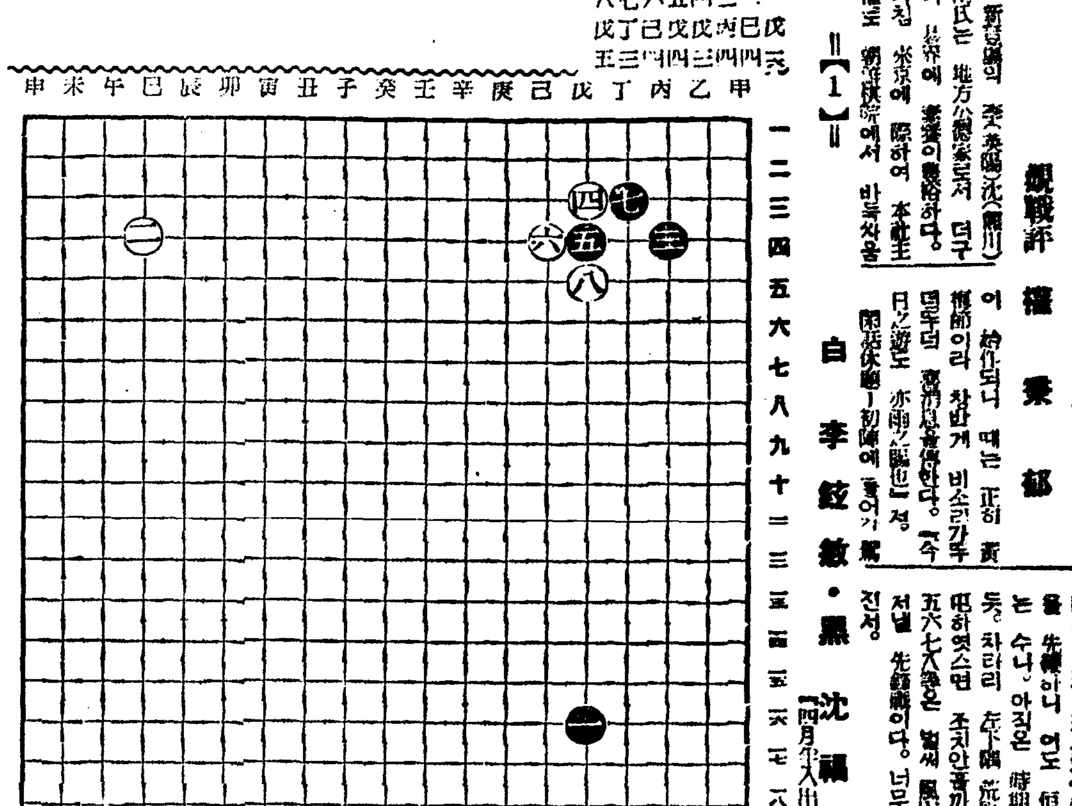
新官編의 李秀陽 沈(鳳川)兩氏는 地方公會家로서 더구나 米京에 [illegible] 際하여 本社主催 朝鮮碁院에서 바둑싸움

【1】

이 始作되니 때는 正히 黃梅節이라 차분하게 비소리가뚝뚝 [illegible]「日之遊는 亦雨之賜也」격 閑居伏鼎一初陣에 들어가 [illegible] 진성

白 李鉉敎 · 黑 沈福鎭 (四月十八日)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二 三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元



第一「高目」과 白二「高目」은 各自 趣味를 따라 布石하는 一例이나 [illegible] 아마도 在來 因襲이 잇는듯 黑三이 [illegible] 黑五「小目」을 [illegible] 白四가 戊의 三으로「小桂馬」[illegible] 五六七八等은 [illegible] 先手 [illegible]

兒童劇 벌레의 裁判 (六日午後六時半)
(懸賞當選 洪文久作)
참새와학교 指揮 高在天

여기는 벌레왕국의 공원입니다 항상 공연히 벌레들이 고 괴롭게굴든『복돌』이가 임금님아페 끌려와서 재판을 밧게되엇습니다 벌들은 참으로 사찌르자고하고 맹독이들은 사기네들이 당한것가치 귓다리를붓너주자고말햇습니다 그러나 온순한나비들은 괴롭게굴지말고 그대신잘타일러서보내자고 말햇습니다. 이러하여 그『복돌』이도 드디어 마음을곳치게 되엇습니다. 이것은 어느날 낫잠속에 나타난꿈이야기입니다。

放送 JODK

六日(木曜)
◀午前六時(東) 라디오體操
◀同七時 宮城遙拜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生메모 日用品時勢
◀正午(東) 時報 오늘의아두실것
◀午後零時五分 俗曲(레코ㅣ드)
◀同零時三〇分 뉴ㅣ스
◀同一時一五分 趣味講演『藥草의傳說』京城藥學專門學校敎授 沈鶴鎭
◀同四時 뉴ㅣ스 職業紹介
◀同六時三〇分 兒童劇『벌레의재판』紀元二千六百年記念懸賞當選 洪文久作 참새학교 指導 高在天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라디오時局讀本
◀同七時三〇分 뉴ㅣ스 天氣豫報
◀同八時 講演『近世의樂古』崔南善
◀同八時三〇分 歌曲 羽調初數大葉 二、羽調頭擧 三、言樂 四、羽樂 五、編樂 六、編[illegible]
李炳星 金花香 金相淳 金永根 金琴海
◀同九時 野談『李浣과洪襫』 庾秋崗
◀同九時三〇分 뉴ㅣ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 時報뉴ㅣ스 氣象通報 라디오메모 明日曆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ㅣ스
◀同一〇時一〇分 中等國語講座(六〇) 金鳳姬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東)하모니카◀同六時(東)不思議問答◀同六時二五分(後)講演◀同八時(東)浪花節◀同八時三〇分(東)時局講話◀同九時(東)音曲

七日(金曜)
◀午前六時(東) 라디오體操
◀同七時 宮城遙拜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料理製法『미나리生치·크림캐메지』日用品時勢
◀正午(東) 時報 오늘의아두실것
◀午後零時五分 室內樂(레코ㅣ드)
◀同零時三〇分 뉴ㅣ스
◀同一時一五分 衛生講演『여름에흔한病과그豫防』李義植
◀同四時 뉴ㅣ스 職業紹介
◀同六時三〇分 어린이科學『여름의理科』朴萬奎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支那語講座(一六) 李相殷
◀同七時三〇分 뉴ㅣ스 天氣豫報
◀同八時(東) 管絃樂 交響曲第二番D長調 부람스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논·트롭포 第二樂章 아다지오논·트롭포 第三樂章 알레그레토크라치오소 第四樂章 알레그로콘·스피리ㅣ트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로ㅣ젠스토크
◀同八時五〇分 座談會『여름과音樂』金管 金메리 李鍾內 朴慶浩
◀同九時三〇分 뉴ㅣ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 時報 뉴ㅣ스、氣象通報、라디오메모、明日曆
◀同一〇時 地方으로 보내는뉴ㅣ스
◀同一〇時一〇分 初步國語講座(一一) 宋今璇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東)新日本音樂◀同六時노래알림◀同六時二五分(東)講演◀同七時四〇分(自中支)◀同八時(東)管絃樂◀同八時(東)漫才◀同九時一〇分(東)時事解說

깟딱하드면 一生을 망칠번햇든 實話

어려저려 五十의고개를 넘엇스니 只今생각하면 옛날이야기요。한창일이의 身勢라 형에지내지안코 몃만 웃지못할일이 니들어주시요。하하하……。이래뵈도 나도 幼時에는 神童이가 낫다고 온洞里에서 떠드러 만큼 똑똑햇소。말이야 낫스니말이지 神奇하리만큼 한번들은말이란이저본일이업섯고 아니 네살때에단한달에千字文한권을다 원잇다면 그만아니요。이러고보니 어린마음에도 世上에무서운것이업고 모든것이 自己마음대로 될것만갓습되다。事實 말이지 하늘에별이라도 당장따올듯 하드군요。그러나 世上에는 人力으로도 어찌할수업는 일이 數업시잇다는것을 次次로알게되엿소。이것좀 보시요。잇처지지도안는구려! 그러처 아홉살나든해 이른봄이되엿다。조곰失手로 그만感氣에 걸려 한보름동안 알치안엇겟소。그後각금머ㅣ르

전 코물이 술술 흘으기도하고 또는 꽉 맥키기도해서 몹시 困難을바덧지요。이것을대수롭지안케생각햇든 연고로 한平生을 망칠번할줄이야 鬼神인들알엇겟소。그러면서 해를거듭하는동안에 점점 머리가 무겁고 아프며 갓득이나 空想만흔少年時代에 不眠症에까지 걸녓지요。그나 그뿐이요 글세 코에서 黃色썩은냄새나는 덩어리진 고름이 흐르고 때때로 현기증이나드니 하로는 그만 나가자빠저서 온집안이 騷動을 일으킨일까지생겻섯지요。이지경이되니 神童이라고하든때는 호랑이담배먹든때일갓고 어린마음에 前途가 캄캄합디다。이때는 아주 머리를망처 누구보다도 바보가되고 半廢人이되엇두군요。비로소 스스로코병을우습게생각하고잇든 어리석은自身을發見하니 딱 기가맥혀 그 막막하든 생각을하면…。그러나 只今부터도 正當한치료만하면 옛날의 나를 再生할

수잇스리라는 信念을가지고 여러가지조타는 藥은다써보앗스나 눈꼽만한效力도업드군요。하기야 漢藥萬能時代이라 모든것이우수운작란이엿지요。아니所謂洋醫한테서 手術도數次햇다우 그거니所用잇습디까。그러든中 至誠이면感天이라할가 偶然한 機會에 湊博士의 注射藥을應用해서 發明한 最新療法이잇다는것을 알고곳求해다쓴結果 奇蹟이라고밧게는말할수 업스리만큼 着實한 效果를안보앗소? 그때는벌써 嗚呼老矣라 귀미테白髮이성성한四十의고개를넘엇군요。코물이흐르는 程度때에곳 고첫드면 只今쯤은 高官大職의한자리를차지햇을거아니요。後悔한들무엇하오。그래도 내가아조내一生을 망치지안흔것은 미나도式의惠澤이라는것을 切實히늣거 感謝하고잇소。코병!사람을 망치는병。미나도式!조흔약이요。信用잇는藥이웨다。

「조선사람과코병」無代進呈
京城府本町四ノ六淺野製藥京城營業所에葉書로請求하소서。